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 어제 주일 말씀에는 다섯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 첫째, 때 되면 너희를 높여준다.
- 둘째, 주께 맡겨라.
- 셋째, 주께 맡기면 내가 사연을 들어 보겠다.
- 넷째, 자기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다.
- 다섯째,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대하신다.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주인이시 때문에 늘 사랑을 퍼부어 신다.

1. <사연>을 들어보면 다르다.

2. 섭리사 한 목사의 부모가 와서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선생이 ‘하나님의 인, 말씀의 인’을 받고 1000년 동안 역사를 펼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못한 것이 한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 딸이 목사가 된 것을 보고, 자기가 할 일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사연을 들어보니 달랐다. 또 그는 군대에 있으면서 5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도를 많이 다녔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의 자녀가 아버지의 그런 정신과 생각을 받아 많은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전도했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그 정신을 다시 주시어 역사하셨구나.’ 알게 됐다. <사연>을 들어보니, 다른 것도

다 풀리게 되었다.

3. 또 어떤 자에 대해 보고가 들어오길, 선생이 잘 기르고 가르친 자인데 연애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이성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주는 용서해 주니 복직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한 동안 알아서 크게 하라고 했다. 그러다가 한 번 월명동에 오라고 해서 왔기에 그 사연을 자세히 물어보니,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상대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것이라고 했다. 한 동안 자기를 따라다녀서 같이 좋아도 했지만, 딱 끊었다고 했다. 이성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달랐다. <생명을 기르는 자>, <관리자>가 내용을 100% 알아보지 않고 보고해서 주가 그 생명을 멀리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지나친 보고>는 정말 고쳐야 된다. <완벽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로 그에게 전도사 사명을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했다. 사명을 받을 만큼 공적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에게 보고해서 교회를 하나 사게 된 공적이다. 그는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 교회에 가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환경 좋은 곳에 예쁜 교회를 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했다. 선생도 그와 같이 새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니, 결국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에 아주 크고 멋진 교회를 얻게 되었다.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에게 전도사 사명을 주니, 이제는 정신과 사상을 제대로 쫓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4. <사연>을 들어보면, 생명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다. 사연을 들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5.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연을 들어보고 대화를 하면, 풀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답이 나온다.
6. 어떤 자는 주께 맡긴다고 하기에 그 사연을 들어보고, 그에 해당되는 답을 주었다. 사연을 안 들어봤으면, 답을 못 받고 갔을 것이다.
7. 하나님께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주께 완전히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안 맡기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8.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맡겨야 하나님도 주도 그 사연을 들어보신다.
9. 성령님께서도 “사연을 들어보아라.” 하셨다. 항상 사연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여라.
10. 자기 사연을 하나님께 고하고, 성령님께 고하여라. <주의 이름>으로 자기 사연을 고하면, 그에 해당되는 답이 온다.
11. 선생도 하나님께 사연을 고할 때는 8시간씩 기도하며 고하고, 8일씩 밤낮으로 기도하며 고하기도 했다. 어떤 것은 20일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구나. 자신들이 기다리던 역사인데 그것을 모르

고 하나님의 역사와 보낸 자를 불신한다.’ 하며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깨달았다. 지구상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신적 세계에 대한 무지, 성서에 대한 무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기본>에 벗어나서 성경을 풀고 가르치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태양도 멈추셨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해서 고기를 잡아 입을 벌리니 거기에 동전이 있었다.” 하며 각종 이론을 들어서 무식한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표적이다.” 한다. 모두 <이치>를 벗어나고, <기본>을 벗어난 해석이다. 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어 천하가 다 물에 잠겼다고 주장한다. 천하가 다 물에 잠기려면, 바닷물의 100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니 그러하다. <전체>를 보고 계산해야 된다. 모두 <이치>와 <기본>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교만한 생각들이다.

12. 이들이 성경을 푸는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그 부분만 보고 문자적으로 푼다. <비유>도 모르고, <이치>도 모른다. 이같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니, 하나님이 생명들을 보내셨어도 다 죽어나간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산 자들이면, 말세 때 죽은 자들의 육신이 다 살아난다.” 하고 주장한다. 완전 사이코, 정신이상자, 돌아이(= 또라이, 정신이 들은 자)다. 하나님께 고하길, 정신이상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 먼저 고쳤으니, 네가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어라.” 하셨다.

13. <기본>을 벗어나면 마치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이를 무시

하는 것과 같다.

14. <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 이것이 <기본>이요, <상식>이다. <기본>, <상식>, <이치>를 기준해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 만일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흘러갔다고 하면 ‘이치’를 벗어나고, ‘기본’을 벗어난 것이다.
15.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니, 자기가 무지한 만큼 고통을 받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6. <하나님의 사연>을 들어보아라.<성서의 사연>을 들어보고, 읽어보아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배워야 깨닫고 알 수 있다.
17.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의 사연’을 잘 들어봐야 된다. 자기 주관, 자기 인식관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너무 많다. <사연>을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잘 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 것도 많다. 부모 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의 사연’을 들어봐야 된다.
18.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이 왜 그같이 했는지’ 사연을 들어봐야 된다. 1대1 사연을 들어보면, 답을 찾고 잘 된다.

19. 따르는 자들을 잘 대해 주려면,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최첨단의 심리>다.
20. 사람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21. 겉으로 보면 잘 모르나, 자세히 그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쓰셨는지 알게 되고, 각종각색으로 알게 된다.
22. 사연을 듣고 서로 알게 된 상태에서 대해 주면, ‘이상적인 역사, 평화의 세계’가 일어난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인생 맡겨라.
24. 안 맡기고 자기가 하면 문제가 일어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주의 이름’으로 사연을 고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사연을 듣고 인도해 주시고, 이야기 해 주신다.